

## 討論(Ⅲ): 心理哲學의 問題

### 論評에 대한 應答\*

— 심신동일론 논쟁을 중심으로 —

소 흥 렬

<이화여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한 철학풍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철학계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스승이나 어른의 주장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직접 비판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철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버려져야만 했던 것이다. 어른이기 때문에, 또는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사실과 학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서서히 무르익어온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철학논문발표회에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 특히 자기의 이론적 약점이 바로 지적되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있다. 그럴 경우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갑자기 당황하게 된다든지, 생각이나 말에 혼란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 반응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 보다 더 중요한 철학적 논쟁의 내용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논쟁이 보편화 되어가는 우리 철학계의 풍토는 우리 모두에게 점차로 그러한 태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습성을 길러주고 있다.

그리고 그와같은 자유로운 논쟁을 발표회 때에만 하지 않고 철학 학술지의 지면을 통하여 계속하자는 시도는 더욱 발전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哲學研究」 제 15집이 心身同一論에 대한 본인의 발표논문과 조승욱, 김여수 교수의 논평만 실었으며, 그 당시 발표회 때 본인이 그들의 논평에 대하여 답변한 것을 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발표회 때처럼 두 사람의 논평에 대한 답변을 조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전개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논평의 내용중 어떤 것들은 이미 발표논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발표논문 자체를 자세히 읽어봄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編輯者註: 「哲學研究」 제 15집에 소흥렬교수의 논문과 여기에 대한 김여수교수와 조승욱교수의 논평이 실린 바 있다. 이 글은 그때의 논평에 대한 응답으로써 게재되었다.

우리는 어떤 비판이든 그것이 비판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판들 중에는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판하지 않고 그것과 비슷한 허수아비 대상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없는, 허공을 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어떤 비판은 그대상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비판자 자신의 생각이 혼동된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내용에 대하여 비판할 때는 그러한 오해와 혼동에 의한 비판이 나올 때가 많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러한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오해를 이해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혼동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의 본래 목적은 발표된 주장이나 내용에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생각의 혼동이 있음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라야 비판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비판이 될 수 있지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더 잘 정리해갈 수 있으며 우리의 주장을 더 깊이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동료 철학자들이 상호 비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철학적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더 깊게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논쟁의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만 그런 논쟁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논쟁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心身同一論”에 대한 논쟁들은 철학적 논쟁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논쟁들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들을 담하면서 동시에 철학적 논쟁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철학과 과학의 관계

심신동일론은 현대적인 唯物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物質과 精神이 서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二元論을 반대하고 精神的인 것은 곧 物質의인 것과 同一하다는 唯物論的 一元論을 주장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同一하다는 一元論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唯物論的인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唯心論, 또는 觀念論의 一元論의 입장에서 心身同一論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유물론을 선택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세계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과학이 우리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만일 이 세계를 정신이나 관념으로 보는 지식의 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학적인 설명 보다 더 잘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해 준다면 唯心論의 一元論이나 觀念論의

一元論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二元論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이 一元論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心身同一論과 같은 一元論을 주장해 보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과학에 의존하는, 과학의 시녀가 아닌가? 철학적 주장이 과학적 지식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形而上學(metaphysics)은 物理學(physics) 또는 自然科學에 근거하는 것이 당연하다. 철학은 이 세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포함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에까지 우리의 이해를 넓혀보자는 것이 철학이다. 지난날의 종교는 자연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한 부분과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통틀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발전은 적어도 그것이 설명해 주는 자연현상에 관한 한 다른 어떤 非科學의 설명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적 관심도 일단 과학적 지식을 그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관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학적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철학이 임시적인 설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물리학적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의 價値觀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倫理的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면 과학적인 지식이 미흡할 때는 어떤 가상의 지식을 전제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한 과학적 지식이 가능하지 않는 문제상황에서도 우리는 가치판단을 하고 행동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은 나중에 과학적 지식이 더 분명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잘된 판단이었는지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선택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심신동일론에 관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과 두뇌적 현상간의 상관관계를 더 세밀하게, 더 밀접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심신동일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다. 두뇌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이란 사실상 하나의 同一한 물리적 사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認識되는) 것이라는 심신동일론을 전제한다면 두뇌학의 발전에 따라서 두 종류의 현상들 간의 상관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독립된 것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상호작용설을 전제하더라도 꼭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의 발전 그 자체는 그 두 철학적 입장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 소용론

연역적 증명과 귀납적 근거를 구별한다면, 과학적 자료는 철학적 입장에 대한 연역적 증명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세계관에 더 잘 부합되는 철학적 입장을 택하고자 할 때 과학적 자료는 그런 입장에 대한 귀납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귀납적 근거로서의 자료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주장도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과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어떠한 철학적 주장이든 假說의인 성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신동일론은, 가설적이긴 하지만, 현대과학이 제시해 주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잘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적 입장으로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과 잘 부합된다는 사실이 철학적 입장을 위한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철학적 논쟁에 의해서 그 입장의 理論的 구조를 밝히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이론적 작업을 위하여 철학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철학적 관심의 문제자체가 과학적 문제와는 다르듯이 철학적 논쟁의 성질이나 내용도 과학적 논쟁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 순환논법의 오류

철학적 논쟁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논법의 오류이다. 문제는 심신동일론도 그런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나는 것이다. 심신동일론을 받아들인다면 두뇌현상과 심리현상의 상관관계를 더 밀접하게 해 주는 과학의 발전이 예측된다는 말은 유물론적 일원론의 눈으로 모든 현상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흡사하다. 심신동일론도 기독교 신앙처럼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모든 형이상학적 입장은 일종의 순환논법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어떤 색깔의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면, 이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노란 색 안경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색깔의 안경들을 바꿔 써보면서 어느 것이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면 순환논법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경의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 셈이 된다. 자연과학은 미리 어떤 색의 안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안경이 우리에게 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과학적 지식이 제공하는 설명력, 예측력 및 이해력에 의거해서 가장 유효한 지식의 체계를 선택하게 하는 것

이다.

현대과학은 유물론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 그 자체는 유물론적 일원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학의 발전이 유물론적 일원론 대신 다른 형이상학적 입장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進化論에 반대하여 創造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자료에는 이미 진화론과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의 한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과학의 발전이 創造主라는 精神的 存在를 인정하는 二元論에 더부합되는 자료를 더 많이 정공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創造論자들이 그러한 二元論을 선택하는 이유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결단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심신동일론은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입증될 수도 없거니와 과학적 지식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심신동일론을 받아들여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입장에서 과학적 탐구를 하게 하거나 이 세계를 그렇게 보게 할 수는 없다.

심신동일론자들이 유물론적 일원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자는데 있다.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세계들이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세계와 한가지 종류의 존재, 즉 물질적인 존재만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독립된 존재인 神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세계는 그런 神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세계인가? 이것이 創造論과 唯物論의 선택문제이다. 이런 선택은 연역적인 논법의 결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 연역적 논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순환논법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3) 존재론적 관심과 인식론적 관심

유물론적 일원론을 선택한 심신동일론자들은 여태껏 우리 인간들이 체험상으로 구별해 온 몸과 마음이 同一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정신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현상의 체험이 신체적 체험과 구별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일상언어는 그런 구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적 체험에 관한 언어를 신체적 체험에 관한 언어나 두뇌상태에 관한 언어로 완전히 번역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일상언어는 우리의 체험에 충실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체험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신적 언어를 신체적 언어로 완전히 대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렇다면 우리의 체험에 충실한 일상언어상으로는 심신동일론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심신동일론은 인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마치 칸트가 현상의 세계와 구별되는 物自體의 세계를 가정하게 된 것파도 같으며, 理論科學에서 실험의 대상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理論的 存在(entity), 예컨대 소집자들이나 만유인력 같은 것을 가정하게 되는 것파도 같은 것이다.

가령, 하나의 사건이 두뇌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현상으로 체험되기도 한다고 할 때, 그 사건자체는 관찰되거나 체험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두뇌 현상으로 관찰된 사건은 물리적 언어로 서술이 되고 정신현상으로 체험된 사건은 정신적 언어로 서술이 된다면, 사건자체는 하나의 同一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서술해 주는 언어적 표현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김재권 교수가 “사건”(event)과 “사건서술”(event-description)을 구별해준 것은 심신동일론이 사건서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건의 차원에서 두뇌현상과 정신현상이 同一함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언어가 몸과 마음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심신동일론은 부당하다는 반론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아래 표현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가지 다른 서술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1) Oedipus' committing patricide.

(2) Oedipus' killing of Zaius.

표현구조상으로 (1)은 Oedipus의 행위를 서술해 주는 것인데 (2)는 Oedipus와 Zaius의 관계를 서술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과 사건서술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의 구조가 곧 사건들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하나의 同一한 사건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사건서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표현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서술해 주는 사건의 同一性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표현들로 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언어는 우리의 체험에 충실하기 때문에 체험을 넘어선 어떤 존재를 가정해야 하는 이론에는 언어적인 구별이나 분석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철학적 관심을 구별해 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체험하는 바 대로의 세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체험과는 관계 없이 독립된 세계 그 자체에 대한 것이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식론적 관심과 존재론적 관심을 구별해야 함을 뜻한다.

정신적 현상이란 바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독특하게 인식되는 어떤 종류의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현상을 두뇌현상과 同一視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재하는 세계, 즉 우리의 인식과 관계 없이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인식된 바 대로의 세계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심신동일론같은 것을 가정해 보게 되는 것이다.

유물론적 일원론은 하나의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그것은 存在論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二元論은 存在論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認識論的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주장이다. 따라서, 심신동일론은 인식론상으로 구별되는 몸과 마음이 존재론상으로는 同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